

대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
- 청주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

Pro-environmental Consumer and Environmentally Conscious
Citizen Behavior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in Cheongju

김 인 숙

서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환경학과

Kim, In Sook

Dept. of Family Resources Studies, Seowon Univ.

Abstract

This paper was written to find the tendency of pro-environmental consumer behavior and environmentally conscious citize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difference between two behavioral tendencies were existed and variables influenced on those tendencies each oth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ro-environmental consumer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as consisted of five tendencies, such as practice in life, environment preservation, environment consideration, patience in uncomfortableness and diversity in circumstances.
2. The environmentally conscious citize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ere consisted of four tendencies, such as environment contamination, self-centered, resource economy, pollution reduction.
3. The pro-environmental consumer behavior tend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were inconsistent with those of environmentally conscious citizen behavior.
4. The variables influenced on those tendencies were sex, concern in environment problem and living condition.

Key words : pro-environmental consumer behavior, environmentally conscious citizen behavior, environment preservation, environment contamination

I. 서론

20세기에는 많은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결과,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조달할 수 있고,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하려는 욕구는 얼마든지 충족시

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지구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그동안 인간이 추구했던 높은 삶의 질은 급기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심각화되기에 이르렀다.

Corresponding author : Kim, In Sook
Tel : 043) 299-8762 Fax : 043) 299-8760
E-mail : kisook@seowon.ac.kr

우리 나라 헌법 제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보전하는 책임이 국가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도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환경문제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일회용품 사용자제와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개개인의 관심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실제 생활 실천행동으로까지 정착되는 것(계선자, 1997)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개별소비자들은 환경을 지키려는 소비태도 함양과 환경친화적인 행동의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비자의 생활양식이나 의식, 가치관의 변화 뿐 아니라 이들의 행동을 환경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환경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이 그다지 체계적이지 못한 채, 사전준비도 없이 각종 학교 및 유관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박원혁 외, 1995),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은 소비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예를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봉투 사용의무제가 실시된 지 꽤 여러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비닐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몰래 내다 버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월드컵 경기행사 중에는 수많은 응원단이 있던 자리에 쓰레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으나 그로부터 1달여가 지난 지금은 또다시 쓰레기 불법투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뉴스보도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한때 길에다 휴지, 가래침이나 담배꽂이를 버리면 경범죄로 처벌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된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렇게도 않게 길에다 휴

지나 담배꽂이를 버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지성의 최고산실이며, 고학력자를 배출한다는 대학캠퍼스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인데, 이러한 일들이 과연 환경의식이 없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환경의식은 있지만 생활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한 결과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문제를 소비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환경의식적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나 반응을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문제와 관련된 소비자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1990년대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는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환경을 염두에 둔 새로운 이념을 모색하고, 1993년에 국제 소비자운동 차원에서의 '환경소비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는데, 이것이 국제 소비자연합기구(IOCU)가 새로운 소비자 행동의 이념으로서 탄생시킨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개념이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소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및 환경시스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개발이 '지속가능한 개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패턴의 변화 역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는 결국 생산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소비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민현선 외, 1996). 대한가정학회에서는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생활환경'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작은 변화들이 학계, 소비자 및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¹⁾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자는 환경보호 실천의 주

1) 실제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 활동중인 소비자 단체 및 환경단체에서는 환경관련 업무와 소비자관련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녹색소비자연대, 한국 YWCA의 홈페이지 참조).

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환경관련 연구의 주 대상은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과 직결되는 쓰레기 처리의 주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주부집단이었고, 그 외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특히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은 세대의 특성을 지니면서 정규교육의 마지막 대상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도 대학생은 생활 속에서 자신이 별도의 관심을 갖지 않는 한 환경문제를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고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지않아 성인으로서 직접 환경문제에 접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들이 환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청주지역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행동을 개별적인 소비와 관련된 행동인지 아니면 타인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성향이 각각 어떻게 나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행동성향은 학생들의 환경지식 수준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각각의 행동성향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 결과는 환경소비자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더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의 실천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의거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은 각각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의 각 성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의 각 성향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의 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환경 소비자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의 개념과 연구동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1. 환경친화적 소비자 ·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및 시민행동

환경문제와 관련된 소비자연구에서는 환경보전적 행동을 실천하는 소비자를 환경친화적 또는 환경의식적 소비자라고 한다. 관련연구에서 사용하는 '환경의식적 소비자(environmentally conscious consumer)', '생태적 관심을 가진 소비자(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 '사회의식적 소비자(socially conscious consumer)',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소비자(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환경친화적 소비자(pro-environmental consumer)' 등의 용어는 환경친화적 소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행동방식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민현선 외, 1999).

환경보전적 또는 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행동의 범주를 크게 구매, 사용, 폐기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향이다. 이 외에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발생단계에서의 감량행동과 배출단계에서의 감량행동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 연구가 대체로 비슷한 동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외국연구들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중 Karp(1996)는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기본적으로 다른 행동과는 달리 자기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 사회전체의 복지에 기여하는 특성이 크지만, 그중에서 특정 행동들은 다소 자기이적일 수 있으므로 자아초월적(self-transcendence)인 행동과 자아증심적(self-enhancement)행동으로 구분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행동유형을 구분하였다. 이것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는 개인적인 욕구충족에 주관심을 두는 행동에서부터 환경이나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관심을 두는 행동까지 자기이익에 대한 추구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민현선 외, 1999에서 재인용).

박운아 외(1997)는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환경에 이로운 소비자행동이며, 환경에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용어와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표현의 차이일 뿐, '환경문제와 소비자 자신들의 소비행동을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비자 자신의 이익이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정리하고 있다.

결국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환경의식 및 환경지식과 관련변인들이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두어왔다. 한 예로 이승신(1993)은 환경보전지식과 환경보전태도는 환경보전기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함으로써 환경지식과 환경의식이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이라는 용어의 의미에는 Karp의 연구에서처럼 두 가지 행동유형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이라는 표현을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행동과 타인과 관련된 행동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으로, 후자를 환경의식적 시민 행동으로 하여 각각의 정도를 파악하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 행동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수행된 연구는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워서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2.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환경지식

이승신(1993)은 환경지식은 개인과 사회집단이 전체환경과 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환경보전에 관한 소비자지식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실, 개념 및 관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영재 외, 1999).

이러한 환경보전지식은 다른 요인보다도 환경지향적 소비자행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김영희, 1995; 김영신 외, 1996; 노영화 외, 1992; 서정희, 1997; 이승신, 1993; 이정우, 1997)에서도 환경보전지식이 높을수록 환경지향적 소비자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보전을 위한 지식의 함양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김영재 외, 1999에서 재인용). 그리고 김영재 외(1999)는 환경에 대한 지식은 환경지향적 소비자행동 중 처분 행동에서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환경지향적 소비자행동과 환경에 대한 지식의 사이에는 이중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박운아 외(1997)는 환경지식과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복잡적이라고 하면서, 지식과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이무영 외, 1995; Langeheine 외, 1986)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운아(1995)는 환경에 관한 실천적인 지식만이 환경친화적인 소비자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고 하고, 박운아 외(1997)에서는 자원변수만으로 접근할 때는 환경지식이 많을수록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 가치지향 변수군을 통제하였을 때에는 환경지식의 효과가 사라졌다고 하였다.

김인숙(200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경지식과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간에는 그다지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일회용 컵의 사용이나 생활에서의 편리성 추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비자 행동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3. 소비자행동·시민행동과 소비자교육·환경교육의 관련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는 존재이며,

또한 인간생활의 질은 환경의 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유두련, 2001). 따라서 인간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도와주는 것이 환경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대상은 소비자라는 점, 다시 말하면 환경문제가 바로 소비자 문제가 된다는 점(유두련, 2001)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의 삶에서 소비와 환경은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때문에 최근에는 소비자 운동과 환경보호 운동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추세를 나타내며,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이 요구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문제와 환경 문제는 각각이 다른 한편에 대한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녹색상품을 구매하거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데에 적극적인 친환경적 소비자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토양오염을 야기시키지 않는 환경보전적 시민이 될 수 있으며, 환경 오염요인을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하는 시민이라면 소비생활에서도 지속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소비자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흡하나마 소비자학에서도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소비자 의식과 태도, 기능 등 능력을 갖춘 소비자 양성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시도하고는 있는 실정이고(유두련, 2001),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환경교육의 내용에는 물품 아껴쓰기, 환경친화적 소비생활, 불필요한 광고나 포장 억제, 재활용품 사용하기 등과 같은 '건전한 소비생활'이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제시되고 있다(왕석순, 2001). 여기서 보면 환경교육에서 소비자 생활과 관련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박명희 등(2001)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소비자교육 내용분석을 하면서 그 분석체계를 크게 가치관 교육, 자원관리 교육, 합리적 구매교육, 그리고 소비자 시민교육으로 나누고, 이 중 가치관교육의 세부영역을 소비윤리(소비욕구, 소비태도, 물자 절약, 소비문화, 분수에 맞는 생활, 충동구매, 아껴

쓰기, 취미와 여가생활)와 환경보호(환경보호-수질, 대기, 토양, 교통문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제)로 나누었고, 소비자 시민교육의 세부영역은 소비자 역할,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소비자 문제와 해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교과서에 의하면 소비자 교육 영역에 환경관련 교육 부분이 포함되는데, 주로 의식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병성(1997)은 소비자 교육 내용에 제시된 환경관련 교육 내용을 대체로 환경보호, 자원관리 및 효율적 이용, 에너지 이용 및 보존, 공기·수질·토양 오염 등의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공동의 목표달성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환경교육과 소비자교육이 상호 연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실천행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환경실천 운동에서는 '하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주로 벌였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변화없이 지구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한국불교환경교육원, 2001), 다시 말하면 가치를 확립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자행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득연(2000)은 환경친화적 소비사회의 구축을 위한 운동전략으로 소비자 운동과 환경운동이 서로 연대할 때 보다 큰 운동성과를 얻을 수 있으나 환경문제의 심화로 소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소비자가 단순히 양질의 값싼 상품·서비스의 구매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보다 환경친화적 상품과 서비스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녹색소비자의 의식을 추구하는 것이 녹색소비자운동이고, 다른 한편으로 소비영역이 환경문제의 발생공간이지 해결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물질적 풍요로움이나 편이성 추구가 환경문제를 일으키므로 소비의 자체와 금욕을 지향하는 의식과 행태를 보이는 것이 소비자 환경운동이라고 하면서 이 둘의 협력과 연대가 환경친화적인 소비사회의 달성이라는 공동의 운동목표를 위하여 필연적인 과제(유두련, 2001)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소비자의 환경운

동과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을 함께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김인숙(2001)이 대학생들의 환경관련 생활행동을 환경관련 소비자 행동과 환경관련 시민행동으로 나누고, 대학별로 각 행동 수준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시도에 관심을 보인 정도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노영화 외(1992), 방혜영 외(1998), 박운아(1997), 유두련 외(1997)와 이정숙(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표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법으로 수집되었다.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이들의 환경소비자 지식수준,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및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환경소비자 지식수준은 환경적 문제와 관련한 서술에 대해 정오를 구분하도록 하는 15개 문항을 제시하였고, 맞추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여 그 합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의식적' 및 '환경친화적'이라는 표현이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소비자의 행동과 관련된 문

항으로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을, 공동사회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기준으로 해 볼 때 한 사람의 환경관련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환경의식적 시민 행동을 각각 측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문항은 가장 바람직한 경우를 5점으로 하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1점으로 한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은 환경과 관련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한 문항을 제시하고, 현재 하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대체로 0.6이상으로 나타나 척도로 사용하기에 별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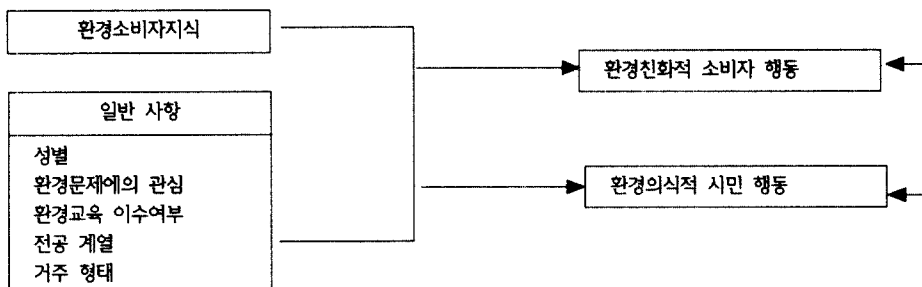
조사는 1999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청주시에 소재하는 4개대학(서원대, 충북대, 청주대, 교원대)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30명에게 조사표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부실기재분을 제외한 315부가 본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조사내용에 따라 평균값과 백분율, 그리고 각각의 행동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 1>은 본 연구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 1> 조사도구의 신뢰도 계수

구 분	환경소비자 행동	환경관련 시민행동	환경소비자지식
Cronbach's α	0.6747	0.6156	0.6341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일반적 사항을 보면,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각각 40.3%와 59.7%로 비교적 고르게 표집되었으며, 이들의 전공계열은 자연이공계가 42.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범계 31.5%, 인문사회계 15.6%, 그리고 예·체능계 10.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생들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있다는 학생이 약 30% 정도였고, 환경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다는 학생이 약 60%였으며, 환경교육 이수 학생 중 환경교육의 이수장소는 '수업중' 73.4%,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15.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36.4%, '동거인' 또는 '혼자' 자취 34.2%, 그리고 '하숙'이나 '기숙사'에 사는 학생이 29.4%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집단은 자신이 직접 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으로, 자취하는 학생집단은 자신이 배출하는 모든 쓰레기를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집단으로, 그리고 하숙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집단은 자신의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는 정도로 처리하는 집단으로 간주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생활 곳곳에서 환경관련 실천의 정도에 따라 세 집단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 및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의 성향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커뮤날리티가 0.5이상인 문항만으로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때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을 묻는 문항 중에는 질문지에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자료 처리시 긍정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코딩하여 처리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각 문항 점수의 합을 분류된 각 성향의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척도의 모든 문항에서 질문 방향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결과,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성향은 5개 요인이, 환경의식적

<표 2>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h ²
나는 물건을 살 때 비닐봉지나 쇼핑백 개수를 되도록 줄인다.	.730					.588
나는 무스같은 스프레이류를 살 때 프레온 가스가 없는 제품을 골라산다.	.705					.597
나는 세제나 비누를 고를 때 하천에 미치는 오염을 생각하여 저공해상품을 선택한다.	.609					.577
나는 샴푸나 린스 대신에 비누와 식초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는다.		.855				.740
나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여 교환한다.		.793				.670
나는 세탁이나 다림질은 그때그때 한다.*			.736			.559
나는 식품을 살 때 방부제나 화학첨가물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597			.554
나는 음식점에서 시킨 음식이 먹기 싫거나 배가 부르면 남기고 나온다.*			.585			.537
나는 야외나들이를 가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는 일회용 그릇을 사용한다.*				.780		.686
나는 겨울철 집안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한다.*				.647		.548
나는 음료수병이나 술병은 판매점에 돌려주고 돈이나 물건으로 교환한다.					.510	.498
나는 가전제품을 살 때에는 가능한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품으로 고른다.					.823	.707
나는 물건을 살 때에는 되도록 쓰레기가 덜 나오는 제품으로 고른다.					.523	.548
Eigen Values	1.83	1.74	1.45	1.37	1.35	
공통 누적변량 (%)	14.1	27.5	38.7	49.3	59.7	
요인명	환경보전성	생활실천성	상황관련성	불편함감수성	환경고려성	

* 표 문항은 자료처리시 재코딩하였음.

(표 3)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구 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h ²
길을 가다가 가끔 짐을 뺀다	.860				.7467
남이 안보는 곳에 가끔 담배꽂이를 버린다	.833				.7011
야외에서 방노한 적이 있다	.767				.6132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신경쓰지 않고 친구랑 떠들거나 장난친다		.856			.7394
강의중인 강의실 옆을 지날 때라도 주위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음악을 듣는다.		.824			.7118
남이 버린 물건을 주워다 사용한 적이 있다			.813		.6953
나에게 필요없는 물건이 생기면 버리기 전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본다			.759		.6195
저녁시간에는 가급적 TV, 라디오 또는 오디오의 소리를 작게 하려고 애쓴다				.797	.6298
학교에서 설치한 분리용 쓰레기통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다				.706	.6979
Eigen Values	2.26	1.57	1.28	1.02	
공통 누적변량 (%)	25.2	42.7	57.0	68.4	
요 인 명	환경 오염성	자기 본위성	물자 절약성	공해 절감성	

시민행동 성향은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은 각 행동을 59.7%와 68.4%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을 보면 1요인은 환경 보전적 성향으로, 2요인은 생활 실천적 성향, 4요인은 불편함 감수적 성향, 그리고 5요인은 환경 고려적 성향으로 명명하였으며, 3요인은 환경 이외에 다른 상황적 이유, 즉 다림질의 경우는 시간적으로 급하다든지, 식품 선택의 경우에는 화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확인·판단할 능력이 없다든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배탈을 막기에 현명한 방법이라는 인식 등과 같은 상황적·주변적 이유들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황 관련적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표 3>의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은 1요인은 환경 오염적 성향으로, 2요인은 자기 본위적 성향으로, 3요인은 물자 절약적 성향으로, 그리

고 4요인은 공해절감적 성향으로 명명하였으며, 이중 1, 2요인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으로, 3, 4요인은 바람직한 성향으로 나뉘볼 수 있었다. 여기서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을 바람직한 성향과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으로 분류한 것은 소비자 행동과는 달리 타인과의 관련성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로 사용될 대학생들의 환경소비자 지식수준에 대해 상황을 살펴본 결과 15점 만점에 9.37점으로 중간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고, 환경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는 학생집단과 자연이공계열 학생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를 위해서 조사 대학생들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성향별 수준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 수준을 <표 4>와 <표 5>에서 각각 살펴

(표 4)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 성향 수준

구 분	환경 보전성	생활 실천성	상황 관련성	불편함 감수성	환경 고려성
만 점	15 점	10 점	15 점	10 점	15 점
전체 평균수준	9.25(2.5)	3.12(1.7)	8.92(2.0)	5.43(1.7)	9.17(2.4)
성향별 수준(%)*	61.7	31.2	59.5	54.3	61.1

* 평균/만점*100으로 계산하였음.

〈표 5〉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 수준

구분	환경 오염성	자기 본위성	물자 절약성	공해 절감성
만점	3 점	2 점	2 점	2 점
전체	1.08(1.1)	0.72(0.8)	1.23(0.7)	0.88(0.7)
성향별수준(%)*	36.0	36.0	61.5	44.0

* 평균/만점*100으로 계산하였음.

보았다. 여기서는 각 성향별 수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성향별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비율을 제시하였다. 먼저 <표 4>에서 환경보전성이 6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환경고려성이 61.1%로 다른 성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상황 관련성은 59.5%나 되고, 불편함 감수성은 54.3%에 불과하였으며, 무엇보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 실천성은 31.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은 그다지 환경친화적인 소비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환경친화적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아울러 환경과 관련한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에서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 수준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오염적 성향과 자기본위적 성향은 각각 36%였고, 바람직한 성향인 물자절약적 성향과 공해절감적 성향은 각각 61.5%, 44% 정도로 나타났다. 여기

서 대학생들은 물자를 절약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구매력의 크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공해를 줄이려는 성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인 환경오염적 성향과 자기본위적 성향은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더욱 낮춰져야 할 것이다.

<표 6>에서는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소비자 행동 성향과 시민행동 성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여기서 보면 각 성향간에는 그다지 커다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소비자행동 성향 중 생활실천성과는 환경보전성간과 환경고려성간이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환경보전성과 환경고려성간, 그리고 상황관련성과는 불편함 감수성간, 환경보전성간 및 환경고려성간의 각각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은 대체로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는 경향이지만,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일관되지 못한 모습도 함께 갖는다고 하겠다. 즉 대학생에게 있어서는 환경

〈표 6〉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간 상관관계

소비자 시민	환경보전성	생활실천성	상황관련성	불편함감수성	환경고려성	환경오염성	자기본위성	물자절약성	공해절감성
환경보전성	1.00								
생활실천성	0.28**	1.00							
상황관련성	0.16**	0.06	1.00						
불편함감수성	-0.00	-0.06	0.18***	1.00					
환경고려성	0.24***	0.15**	0.16**	0.06	1.00				
환경오염성	0.00	0.08	0.09	-0.01	0.07	1.00			
자기본위성	-0.09	-0.05	-0.02	-0.09	-0.08	0.07	1.00		
물자절약성	-0.17**	-0.13*	-0.12*	-0.06	-0.10	-0.11*	0.04	1.00	
공해절감성	-0.11	0.07	-0.01	-0.08	-0.08	-0.07	0.09	0.15**	1.00

*P<0.05 ** P<0.01 *** P<0.001

<표 7>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과 영향변수

구분	환경 보전성			생활 실천성			상황 관련성			불편함 감수성			환경 고려성		
	B	β	t값	B	β	t값	B	β	t값	B	β	t값	B	β	t값
환경지식 수준	3.672E-03	.003	.05	-9.3E-02	-.138	-2.41*	.119	.138	2.34*	1.467E-02	.020	.33	.144	.143	2.48*
여학생	-.147	-.028	-.47	-.759	-.230	-3.92***	-.551	-.133	-2.19*	.353	-.101	-1.62	-.561	-.114	-1.93
사범계	.350	.063	.88	.367	.105	1.49	7.549E-02	.017	.23	.159	.043	.57	.376	.072	1.01
인문사회계	.330	-.046	.75	-4.4E-02	-.010	-.16	.638	.112	1.81	-.351	-.073	-1.15	-7.2E-02	-.011	-1.17
예·체능계	-.486	-.059	-.98	-.113	-.138	-2.41	-.173	-.027	-.43	-.174	-.032	-.50	.737	.096	1.60
환경문제 관심 무	-2.053	-.263	-4.54***	-.904	-.183	-3.25**	-.659	-.107	-1.82	-.320	-.061	-1.02	-1.094	-.150	-2.61**
자취	-.120	-.022	-.34	.238	.069	1.10	-.289	-.069	-1.0	.110	.030	.45	.862	.170	2.66**
하숙	-1.97E-02	-.003	-.04	.556	.155	2.22*	-5.6E-02	-.012	-.17	-3.7E-02	-.010	-.13	.262	.049	.69
환경교육 미이수	-.590	-.113	-1.95	.127	.038	.68	.331	.080	1.36	4.156E-02	.012	.19**	-.496	-.101	-1.76
상수	11.276		13.23***	4.763		9.04***	8.624		12.56***	5.803		9.80***	8.683		10.97***
R ²	.096			0.134			0.074			0.022			0.118		
F 값	3.433***			4.982***			2.568**			0.744			4.309***		

*P<0.05 ** P<0.01 *** P<0.001

보전이라는 과제가 자신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되는 사항이고, 자신의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민행동 성향간에서는 물자절약성은 환경오염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공해절감성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물자절약을 하는 대학생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은 자제하고, 공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행동성향 중 환경보전성, 생활실천성, 그리고 상황관련성은 시민행동 성향 중 물자절약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환경보전성이 높거나 생활실천성이 높은 대학생에게서 물자절약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대학생은 물자절약에도 소홀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환경관련한 소비자 행동 및 시민 행동에서 불일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에서 대학생들의 행동은 아직은 환경친화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의 각 성향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기 위하여 이들 각 성향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사대상 학생들의 환경지식 수준과 성별, 전공계열별, 환경문제에의 관심여부별, 환경교육의 이수여부별, 그리고 거주형태 변수를 더미변수로 하여 이들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각각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생들의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을 구성하는 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표 7>에서 보면 생활 실천적 성향에 대해 가장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즉 환경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여학생이 아닐수록,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 아닐수록, 그리고 하숙 학생의 경우에 생활실천

〈표 8〉 환경의식적 시민행동과 영향변수

구 분	환경오염형			자기본위형			물자절약형			공해절감형		
	B	β	t값	B	β	t값	B	β	t값	B	β	t값
환경지식 수준	3.096E-02	.061	1.61	-2.0E-02	-.059	-.99	-2.3E-02	-.072	-1.21	-1.7E-02	-.055	-.93
여학생	-1.876	-.766	-19.57***	2.552E-02	.015	.24	.108	.069	1.13	.129	.084	1.38
사범계	-1.9E-02	-.007	-.15	-.321	-.180	-2.45*	-9.1E-02	-.054	-.75	5.376E-02	.033	.45
인문사회계	2.886E-02	.009	.21	2.746E-02	.012	.19	-9.7E-02	-.045	-.73	.238	.033	1.81
예체능계	9.135E-02	.024	.60	8.723E-02	.033	.53	-.110	-.045	-.73	.137	.057	.93
환경문제 관심무	.237	.065	1.70	-.196	.078	1.32	.449	.191	3.27**	.271	.118	2.01*
자취	.190	.075	1.79	4.335E-02	.025	.37	.114	.070	1.09	.250	.157	2.42*
하숙	7.959E-03	.003	.64	.204	.112	1.53	-7.6E-02	-.044	-.61	8.042E-02	.048	.67
환경교육 미이수	.150	.061	1.61	4.561E-02	.027	.45	.101	.064	1.09	.110	.072	1.23
상수	1.556		5.95***	.744		2.65***	.994		3.85***	.478		1.88
R ²	.611			.039			.075			.065		
F 값	50.980***			.321			2.618**			2.244*		

*P<0.05 ** P<0.01 *** P<0.001

적 성향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 보전적 성향과 환경 고려적 성향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수는 환경문제에의 관심 여부였는데, 즉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으면 환경 보전적 성향 및 환경 고려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 고려적 성향 수준은 환경문제에의 관심 변수 외에도 환경지식 수준이 높거나 자취생이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지식 수준이 높거나 여학생이 아니면 상황 관련적 성향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고, 환경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대학생들이 이수한 적이 있다는 환경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였다.

다시 각 영향변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경지식 수준과 환경문제에의 관심여부였다. 이 중 환경지식 수준은 생활 실천적 성향에는 부적으로, 환경 고려적 성향과 상황 관련적 성향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지식과 실천이 별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에의 관심 여부 변수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으면 환경 보전적 성향, 생활 실천적 성향과 환경 고려적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보이는 환경문제에의 관심의 방향을 제대로 정립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에 두 개의 성향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난 성별 변수를 보면 여학생이면 생활 실천적 성향과 상황 관련적 성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은 생활에서의 실천이 미흡하지만 상황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는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거주형태 변수 중 자취생은 환경 고려적 성향에 정적으로, 하숙생은 생활 실천적 성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자취생의 경우에는 생활환경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나름대로 환경을 고려하려 하는 측면이 있고, 하숙생은 주인집의 요구에 따라 생활 속에서 보다 많은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초 본 연구자는 환경지식 수준이 높거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환경교육을 이수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다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 성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는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경우 실천으로부터 습득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과 불일치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에의 관심과 그들이 이수한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표 8>에서 보면 여학생이 아니면 환경오염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²⁾, 사범계 학생이 아니면 자기본위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반면³⁾,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는 집단에서 공해절감적 성향과 물자절약적 성향이 높고, 자취 학생의 경우에 공해절감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대학생들의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은 환경문제에의 관심의 결과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의 성향이 어떠하며, 각 성향별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이들 성향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의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은 환경보전적 성향, 생활 실천적 성향, 상황 관련적 성향, 불편함 감수적 성향과 환경 고려적 성향

의 5개 성향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은 환경 오염적 성향, 자기 본위적 성향, 물자 절약적 성향과 공해 절감적 성향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2. 대학생들은 그다지 환경친화적인 소비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더욱이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생활 실천성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었고, 바람직한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이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환경의식적 시민으로의 발전적 모습을 알 수 있었다.
3. 소비자 행동과 시민 행동의 각 성향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았으나, 소비자 행동 성향 중 생활 실천성과는 환경 보전성간과 환경 고려성간이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고, 환경보전성과 환경고려성간, 그리고 상황 관련성과는 불편함 감수성간, 환경 보전성간 및 환경 고려성간의 각각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소비자 행동 성향 중 생활 실천적 성향은 환경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여학생이 아닐수록,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 아닐수록, 그리고 하숙 학생의 경우에 높으면 높은 수준을 보였고, 환경 보전적 성향과 환경 고려적 성향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수는 환경문제에의 관심여부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으면 환경 보전적 성향 및 환경 고려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 고려적 성향에는 그 외에도 환경지식 수준이 높거나 자취생이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환경지식 수준이 높거나 여학생이 아니면 상황 관련적 성향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환경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2) 이에 대해서는 측정문항이 여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행동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사범계 학생의 경우에는 전공계열 성격상 타계열보다는 자기위주의 행동에 다소 제약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은 가까운 미래에 구매력을 갖춘 강력한 소비자 집단이 되므로 이들이 현재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미래에 그들이 어떤 모습의 소비자이자 시민이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환경 소비자교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교양과목에 반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 및 소비자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학생의 경우 지식과 실천에서 불일치성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환경소비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소비자 교육의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환경지식을 높이고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환경 보전에 실효성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활 속에서의 실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실천 강령, 즉 구체적인 실천요령까지 일일이 열거해서 재인식을 시켜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환경의식적인 시민행동과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이 비교적 자주 접하는 인쇄물 및 방송매체, 인터넷 매체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대학 교내에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율적 환경보전 규칙」(가칭)과 같은 강령을 제정하여 생활 속에서의 실천운동을 전개한다면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책임있는 성인으로서의 행동모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대학생들은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에서 불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행동 성향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개인을 위한 행동과 타인과 관련된 행동은 절대 별개가 아니고 결국은 그 모든 결과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근본 원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가시적인 환경보전적 실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경우 각각의 행동수준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높고 낮은가 하는 것보다는 각 행동 중 어떤 성향이 강하고, 어떤 성향이 바람직한지를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은 자제하고 바람직한 성향은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환경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청주지역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성향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대학생들을 환경친화적 소비자이자 시민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이들의 환경문제에의 관심과 환경 교육에 대한 효과를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실제로 지금까지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환경소비자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학생 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맡겨졌기 때문에 조사대상 대학생 중 환경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받은 환경교육의 내용의 비효율성 및 비체계성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사회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적 실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환경친화적 소비자이자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에게 실질적인 환경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이들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의 표준화 연구와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소비자 행동 및 시민 행동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내용의 개발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 환경의식적 시민 행동, 환경보전, 환경오염

참고문헌

계선자(1997). 아동기 소비자의 환경보존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 김영재·김정숙(1999). 환경지향적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제주시 주부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3).
- 김인숙(2000). 청주시 대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 **응용과학연구** 9(1). 서원대학교.
- _____(2001). 청주시 대학생의 환경관련 생활행동 비교. **학생생활연구** 19집. 서원대학교.
- 노영화·강성진(1992). 환경보전을 위한 가정소비생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대한가정학회(2001). 지속가능한 삶과 생활환경. 2001년도 제54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민현선·이기춘(1996). 환경의식적 소비자 행동과 환경규제 방안에 대한 지지도. **대한가정학회지** 34(3).
- _____(199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
- 박명희·이승신(2001). 21세기 소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교육의 방향. **한국소비자학회 제5차 Doctoral Consortium** 자료집.
- 박운아·이기춘(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 _____(1997).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행동과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 박원혁·문두호·조운복·최병태(1995). 환경교육을 위한 대학생의 의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보** 22.
- 방혜영·이진하(1998). 청주지역 대학생의 환경보전 의식과 실천행동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졸업논문**.
- 백병성(1997). 소비자환경교육에 관한 일고. **소비자문제연구** 제20호. 한국소비자보호원.
- 왕석순(2001). 환경교육적 측면에서 본 가정과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 제54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유두련·정경옥·심미옥(1997). 가계의 환경의식적 소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 _____(2001). 환경교육과 소비자교육. **한국생활과학회 동계 학술대회** 자료집.
- 이득연(2000).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양식의 확산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이승신(1993).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 능력, 소비자학 연구 4(2). - 한국소비자학회 1993년 도 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환경문제와 소비자).
- 이정숙(1997). 환경관리지식과 환경오염인지 및 환경보전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8(1).
- 한국불교환경연구원(2001).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 허홍옥·문두호·허만규(1995). 부산시내 대학생들의 환경문제 의식에 관한 연구(I) -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 및 지식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보** 22.